

“어머니, 이제 한열이 옆에서 편히 쉬세요”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별세

아들 이어 민주투사로 한평생
문재인 대통령·이재명 후보 등
정치·사회 등 각계 애도 물결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
내일 광주 망월동 8묘역 안치

1987년 6·10 민주항쟁에 불을 붙였던 고(故)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9일 오전 5시 조선대병원에서 82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관련기사 3·7·16면〉

아들의 죽음 이후,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배은심 여사의 별세 소식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넘어 각계각층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특히,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는 배 여사의 평소 바람은 3월 대선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해 한 단계 진전된 민주주의의 사회 구현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지난 1987년 6월9일 민주화 투쟁 중에 경찰이 쏜 최루탄 맞아 희생된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6월 민주항쟁의 불길에 돼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평범한 주부였던 한 어머니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같은 해 7월 9일 연세대학교에서 서울 시청으로 이어진 장례식 길에는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한열이를 살려내라”는 구호가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배 여사는 장례식에서 “이제 다 풀고 가거라. 엄마가 갚을란다. 한열아! 한열아! 가자, 광주로!”라고 절규했고 “아들 대신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6월의 어머니’, ‘거리의 민주투사’가 됐고 아들의 못 다 이룬 꿈을 위해 온 몸을 던져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배 여사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에 참여,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한열 열사 모친 고(故)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와 박종철 열사 아버지 고 박정기씨 등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위와 집회가 열리는 현장이면 전국 어느 곳이든 달려가 힘을 보탤다. 또 유가족 회장을 맡아 1998년부터 422일 동안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벌여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배 여사는 민주화와 인권 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6·10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배 여사는 훈장을 받는 자리에서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전하기도 했다.

평생을 민주주의 운동에 헌신했던 배 여사의 별세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대선 후보들

과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고(故)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방문, 고인의 넋을 기리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열사와 아들의 못 다 이룬 꿈을 이어간 배은심 여사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고인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한다”고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 지역에서 1987년 당시 6월 항쟁을 이끌었다.

대선 주자들의 추모도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저녁 빈소를 직접 방문해 “6월과 민주주의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

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애도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이날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추모했다. 주요 정당들도 논평 등을 통해 배 여사를 추모했다.

배 여사의 빈소는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에 마련됐고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10일 오후 7시 광주와 서울에서 ‘추도의 밤’ 행사가 열린다. 11일 발인 이후, 5·18민주광장에서 노제를 진행하고 망월동 8묘역에 안치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 감소세에도 광주·전남에선 하루 200명 쏟아져

전국적 감소세에도 광주·전남에선 하루 200명을 넘나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확산세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광주시는 ‘백신 사각지대’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보육 시설을 중심으로 한 특별방역 대책까지 내렸지만,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등이 번진 상황이어서 시·도민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99명, 7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현재 역학조사중이거나 검사 진행중인 건수를 감안할 때 기존 하루 기준 최고치였던 112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해 22명이 추가확진 됐으며, 서구와 남구,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도 14명이나 나왔다. 이날 전남에서도 72명이 신규 확진됐다.

앞서 지난 8일에도 광주에선 총 92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학생 등 8명이 신규 확진 됐고, 광산구 소재 제조업체 2곳에서도 추가로 7명이 나왔다. 서구 소재 복지시설에서도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누적 11명을 기록했다.

전남에서도 같은 날 112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지역별로는 목포 44명, 나주 17명, 무안 11명, 진도 9명, 함평 7명, 광양 6명, 강진 5명, 고흥 3명, 여수·영암·완도 각 2명, 장흥·해남·장성·신안 각 1명 등이다.

특히 광주·전남에선 최근 백신 미접종 연령대인 10대 이하의 감염이 확산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인 10대 이하들이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감염된 뒤 가정 내 감염에 이은 부모의 직장 내 감염 등 지역사회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지사는 지난 7일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백신접종의 사각지대인 어린이의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감염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족 등 n차 감염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무료로 제공해 중사자와 아이들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활용하도록 했으며, 노인 이용 시설 등으로 확대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속도낸다

LH측에 이전계약금 납부

빛그린산단으로 광주공장 이전을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이전계약

금을 납부하면서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9면>

9월 함평군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6일 광주공장 이전부지 계약보증금을 한

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납부했다.

앞서 금호타이어와 LH는 지난달 30일 광주공장 이전 신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산단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이전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하는 토지는 빛그린산단단지 2단계 사업구역으로, 약 50만㎡ 규모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외국인 선수 3명 구성 완료 ▶18면

우리 역사 우리 문화 - 정음사공민 ▶22면

Sulwhasoo

설화수 자음생크림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